

에드몬톤 소망교회 (일과 영성)

2018 3 27



계약직 만료를 앞두고 있을 때, 나의 딱 한 가지 소망은 정직원이 되는 것이었다. 연봉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다니던 회사에 내 책상이 생기길 바라고 기도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던 정직원 계약을 했을 때, 같은 시간 일해왔던 동료도 같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동료가 내가 받게 될 연봉보다 조금 더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처리와 양은 내가 더 많았고 처리한 일의 수준도 높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동료보다 일과 관련된 수업을 더 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해도가 높았다는 이야기다. 처음엔 인정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 또한 어떻게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 배워야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납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진실된 크리스천이라면 보상과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설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나도 가슴 한 켠으로는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들은 신앙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성공과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책을 읽기 전에는 그들의 성공은 끝이 있으며 오히려 추락할 가능성이 아주 많고, 그렇게 되면 타락과 사망의 길을 걷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해 왔다. 오히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이 괴심해서 그들이 추락하는 것을 내 자신도 모르게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다. 나도 잘 몰랐던 내 안의 악을 발견해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책은 비신앙인들이 신앙이 없고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고 비난하는 것도 다른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냄으로 결코 좋지 않다고 말한다. 나는 꽤 최근까지 회식자리, 파티, 대중음악과 문화를 일부러 피하며 찬양만 듣고 심지어는 라디오도 기독교채널만 듣고 있었다. 물론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크리스천이 만들어내는 우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깊은 찔림을 받았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해.' 라는 생각에 휩싸여 헛된 자긍심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지금까지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어울리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나

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무슨 특권이라도 된 마냥 우쭐대고 있었다.

또한 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큰 깨달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잘못을 대신 자신 것처럼 부하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 짚어준 상사의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나라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질문 자체가 나는 아직 그 상사와 같은 길을 걸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알았다. 아직 갈 길을 멀지만 나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지혜를 얻어 갈 수 있음에 이 책을 읽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두번째 파트 중 제일 와 닿았던 제7장의 제목은 '고생해서 이만큼 일구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이다. 저자의 말처럼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고 이뤄내는 모든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이다. 대부분은 그 경험이나 성공의 궤도의 키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여시어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인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마음 한 편으로는 반대의 생각도 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야'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났다.

저자는 저마다 일하는 분야마다 도려내야 할 썩은 자리가 있다고 했다. 일 경력의 짧은 지금의 나로써는 불의를 보면 담대하게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대항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의 나를 대입해 보면 과연 저자가 주장하는 것 같이 온 힘을 다해 규정을 바꾸며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혹여 규정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오는 기회와 부를 딱 잘라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는 지금의 나로선 슬프지만 대답할 수 없다. 책에서 예로 든 프라이빗 에쿼티 운용 업무를 하는 저자의 지인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에 의해 어차피 이뤄질 거래는 그대로 진행하되 그것에서 창출되는 자신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을 바탕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해서 돈과 명예를 따르지 않는, 마음으로라도 이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8장으로 넘어가보면 마음으로부터의 이상숭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곳에서도 나는 찔림을 받았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내 입장이나 다른 제 3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임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상숭배라는 개념은 전혀 있지 않았다. 이상숭배라 함은 상이나 물체를 만들어 그것을 드높이고 숭배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실생활을 위협하는 것일 줄은 생각도 하지 못 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생각해 보니 그러한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의 단 한가지 이유는 바로 눈 앞의 돈과 명예이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과 나의 신앙과 양심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조심해야 할 숨겨진 이상숭배였던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남들의 위상은 잘 보면서 본인의 위상은 전혀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길 바라며 깨어있으라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 이효경

The word vocation comes to mind after reading the first few pages. As a current student teacher, I believe I know what it means to have a profession as a vocation rather

than just a job. I struggled a lot,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to come to the point of where I am now. I have never in my life been so busy and clustered with thought till now and I say that with good intentions. If you were lost like me, there is a point in your life where you reflect on the true meaning of life and think to yourself “is this it?”. Looking back at it now, I can tell you that is the worst feeling to have since you have no answer, there is nothing to relieve you of that contemplation. As I am working on my AFX, I have realized my skills or so-called talents that has been a gift from God, which is to talk. Although the skill has broadness to it, if I were to specify it, it would be talking as a leader. Such socialization talks do not excite me as much as talking to others through a firm and more meaningful content. Of course, I am not advocating that social conversations are necessarily bad; however, I am saying that there is more meaningful content to talk about with others than just a simple “how was your day?”. This all ties into what I believe is vocation. Rather than my teaching job being just simply a job, it’s as though I have been called upon by God to do this for him and for myself. An indication of this is through my happiness and decision making. For example, I am overwhelmed with emotions whenever I am within the school environment. When students approach me, automatically I have this sense of empathy towards them and cannot wait to see what they will become. For decision making, till now, no matter the cause, if it were for the sake of my profession, all the things that I want, God makes it happen.

- Vin Joo

정말 감사하게도, 졸업 전에 직장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사회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도전받는지,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가 얼마나 긴밀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일을 믿음으로 덮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고 불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거의 매일 들었다. 회계사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돈을 보고 숫자에 예민한 생각으로 가득차 믿음을 유지하려면 회계사라는 직업은 믿음을 위해서 결국 그만두어야 하나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회사는 비즈니스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다보니 술과 함께하는 파티와 이벤트도 많다. 나는 음주를 지향하지 않는 관계로 예의있게 거절해왔지만 이것이 나중에 커리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은 것도 사실이다. 차라리 모든 것을 그만두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갈까했다.

저자가 말하듯,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나 또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과 같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책을 읽음으로서 일은 고난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생각이 바뀌었고 이제는 일에 대한 태도도 변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본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비즈니스의 세상으로 인도하신 데에는 지금의

나로선 이해하지 못 할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는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실 줄 굳게 믿고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아리송했던 나의 믿음의 부분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었다.

- 무명

Part 1

지금 현재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배우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에서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주님처럼 생각을 고급지게, 행동을 할때 최선을 다하고, 또 기쁨이 가득찬 일상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쉴 때는 내가 보냈던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모든 직업이 다 고귀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직업을 보고 들으면 저만의 생각 안에서 직업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 좋던지, 좋던지 둘 중 하나로 결정을 지으면서 편견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걸 고귀하게 만드셨고 필요성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직업의 고귀함을 읽으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사역에 동참하고 있을까? 아니라면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을까? 부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할 것은 기도와 찬양을 해야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항상 일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는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삶의 목적을 주는 주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좇는 고유한 역할에서 벗어나선 안된다” 저는 일을 함으로써 저만의 계획이 생기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대게 됩니다. 저는 신앙 선배이신 제 어머니와 제 꿈에 대해서 상의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그때마다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성공했다고 아님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항상 주님을 잊지 말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art 2

일, 끝없이 추락하다. 저를 포함하여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적당한 선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선을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part2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사람의 욕심은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나와 있다시피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많이 타락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죄들을 짓는다고 말입니다. 저는 욕심이 죄를 짓는 거라는걸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타락하는 거 같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이라는 말로 변형하면서 그 말의 뒤에 숨은 욕심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바쁘게 삽니다. 집, 일, 집, 일. 거의 social life가 없어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버는 맛을 알

아서 욕심이 더욱 불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책에서 말하다싶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형상을 만드셨지요. 하지만 거기서 선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서인지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저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지요. 이러한 점에서 저는 한 우상이 아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일'이라는 우상이지요.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앞서가기 보단,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 일 앞에서는 정말 순한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바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제 자신도 모르게 섬기고 있던 우상. 회계의 연속입니다. 그냥 기도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을 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는 걸 으뜸으로 삼고 살도록 지음 받았으며 거기에 충실해야만 비로소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이 문장을 보고 나의 오직 기둥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상 일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저를 보고 싶습니다.

Part 3

회복. 일에서 지은 죄들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죄. 너그럽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워진 죄. 회복을 원하는 저 입니다.Part 1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하심. 일에 중요점입니다. Part 2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Part 3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 가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잊고 일을 하며 ㄸ한 그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락해 나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구원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의 관계를 좁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독특한지 새삼 놀랍다. 오직 크리스천의 세계관만이 세상의 일부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죄 자체를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책으로 삼는다" 저자의 말대로 기독교는 정말 독특합니다. 이 독특함을 제가 맛복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항상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항상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크리스천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Chapter 1의 제목이 '이건 세상 일이고 저건 하나님 일이라는 이분법을 배격하라'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일을 분배하면서 하고 있더라구요. Part1에서 말했다시피 인간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모든 일을 존귀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은 하나님 일이고 어떠한 일은 제 일이라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저자가 말하듯 모든 일을 구별 없이 주님께 하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존귀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솔직하고 따듯하며, 너그러워야 한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삶을 살아 갈 때 저자가 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인간들은 질투가 있어서 잘 보일려고 누군가를 내려 깎거나 아니면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배려해주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앞에서만 잘하는게 아닌 뒤에서도 잘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무교인데도 크리스천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뵈기 부끄럽게 않게 크리스천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침반을 따르면

서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만들어주신 나침반을 볼 수 있고 곧 구원의 확신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큐티도 하고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걸 우선 순위로 해야 합니다.

- 송하은